

특허기술이 성공 보증수표는 옛말 “이젠 특허 상품도 차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최근 독특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다른 기업에 앞서 특허를 획득하고도 상품화에 실패하거나 비록 상품화에 성공했다라도 소비자들의 구미를 맞추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점점 심화해 이젠 특허나 이의 상품화 만으로는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차별화한 특허상품으로 성공을 거둔 한 벤처기업 사장은 “이젠 특허를 얻어 상품화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돈을 벌던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다”며 “상품 자체와 마케팅에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차별화전략이 없이는 치열한 시장경쟁의 칼날 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향후 소비 시장에선 차별화하고 독특한 특허기술을 적용한 기능지향적 고부가가치 상품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에 소개된 기업들도 차별화한 특허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해당시장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형성해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옥시젠스의 경우 화학반응 방식에 따른 산소발생 방법에 대한 발명 특허를 얻어낸 뒤 이를 휴대용 산소 발생기 “닥터 옥시젠”으로 상품화하는 등이 회사만의 독특한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 “산소 판매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올들어 특허기술의 상품화에 대한 국내 안팎의 분위기도 상승하고 있다.

이 달 초 한국이 국제 특허 출원건수에서 사상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해 총 2,319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 2000년의 11위에서 3단계 뛰어오른 8위를 차지하며 “특허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또 국내에서도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하고 있어 그동안 자금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10여개 유관단체들로 구성된 특허사업화협의회는 지난 달 말 협의를 갖고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 해(506억원)보다 2배 이상인 1,039억원 규모로 확정, 중소기업들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 기술 개발을 위해 80억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특히 이를 상품화하는데 710억원이 융자형태로 기업들에게 지원돼 상품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허기술의 상품화를 통해 기업이 성공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허 기술을 상품으로 만들어 한창 기업을 키우다 특허소송에 휘말려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한숨어린 호소는 특허의 상품화를 통해 기업이 성공을 거두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대접 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통한 특허기술의 상품화”뿐이라는 것을 기업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출처 한국일보

발특2002/5